



## [낙농경영] 원유 집유의 전과정 디지털 전환 가속화

### - Piper Systems社의 집유 자동화 시스템, 미 FDA 승인



아일랜드의 한 낙농기업체가 개발한 집유 자동화 시스템이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 부터 승인을 받으며 원유 집유 작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Piper Systems社의 원유 집유 자동화 시스템은 낙농생산의 효율성은 물론 정확성 및 추적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집유 시간을 단축할 뿐만 아니라 정밀 유량계를 사용해 원유의 무게와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이를 자동으로 입력해 별도의 문서작성이 불필요해졌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바이러스 확산과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시스템은 자동으로 분석에 필요한 원유 샘플을 채취하고, 원유 집유부터 운송, 유통 그리고 집유 차량 및 기기세척(CIP)까지 모든 단계를 전산화해 투명하게 제공한다. 또한,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확한 탄소 배출량 계산을 위해 원유 집유 및 유통과정을 추적할 수도 있다.

이에, 이 회사는 까다로운 미국의 FDA 승인 절차를 통과한데 이어 금년 본격적인 미국 낙농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bulktransporter.com, 1월 26일자>

## [라벨링] 日, 가공식품의 '표준식품 성분표' 개정판 발표

### - 당분 및 칼로리 소모량 세분화로 소비자 알권리 충족



식습관의 변화로 가공식품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일본이 가공식품의 국가 표준식품 성분표 개정판을 발표했다.

문부과학성(MEXT)은 지난해 4월부터 라벨링 시스템 개정을 통해 가공식품의 영양성분표 부착을 의무화한데 이어 최근 가공식품에 함유된 탄수화물 함량 뿐만 아니라 1회 제공량에 담긴 칼로리를 반영한 영양성분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당분 섭취량과 칼로리 소모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탄수화물을 유형별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이번 개정판의 주요 변경사항 중 하나는 식품의 성분에서 탄수화물 유형을 세분화해 단순히 '탄수화물'로 표기하는 것이 아닌 '단당류', '식이섬유', '당알콜' 등 탄수화물의 하위범주를 추가로 표기해야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구매하는 식품의 탄수화물 함량이 적정 당분 및 칼로리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정도를 파악하고 건강한 식단을 위한 식품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문부과학성은 1회 제공량의 정확한 칼로리 계산을 위해 아미노산, 지방산 등 표준식품성분표에 표기되는 식품성분 유형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foodnavigator-asia.com, 1월 26일자>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